

인도네시아 (Indonesia)

2014년 10월



인구 : 251,160,124 명
면적 : 1,904,569 km²
수도 : 자카르타
언어 : 인도네시아어
화폐 : 루피아(Rupiah)

1. 국가개요

가. 국 기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라고 불리며 붉은색은 용기 (Berani) 와 자유를 뜻하며 흰색은 고귀함 (Suci)과 정의를 뜻한다.

13세기 마자파히트 왕조가 두 가지 색을 왕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마트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 garaja) 왕조, 슬라웨시 지역의 부기스 보네 (Bugis Bone)왕조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독립 투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국 장

인도네시아는 가루다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의 새를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새의 몸 속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그림이 바로 Panca Sila(고대어: five basic principle)라고 불리는 5개의 건국 이념을 나타낸다.



첫 번째, 중앙에 있는 별: 신앙의 존엄성
두 번째, 오른쪽 아래의 체인: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 오른쪽 위의 나무(브링인): 통일 인도네시아
네 번째, 왼쪽 위의 물소(반): 민주주의 대의정치
다섯 번째, 왼쪽 아래의 벼이삭: 사회정의 구현

두 발에 쓰인 'BHINEKA TUNGGAL IKA'라는 뜻은 '다양성 속의 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 뜻으로 광대한 국토에 다양한 민족의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몸의 금색 깃털에도 의미가 담겨있는데 날개부분에 17개, 꼬리에 8개, 목 부위에 45개의 깃털을 그려 넣어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 17일을 나타내고 있다.

다. 일반 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 km²(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인구 약 1,200만 명, 면적 661km²-서울 면적 605km²)

인 구 약 2억 3,764만 명(세계4위) ('10년 기준, 이후 통계 발표되지 않음)

주요도시

- 자와섬: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 수마트라섬: 메단, 빨렘방, 빠당
- 깔리만탄: 뽀띠아낙
-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 발리섬: 덴빠사르

민족(인종)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종 교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불교(2%), 힌두교(1.8%)

건국(독립)일 1945년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집권 1기: 2004년 10월 ~ 2009년 10월 (임기 5년)

집권 2기: 2009년 10월 ~ 2014년 10월 (취임일 10월 20일)

(2014년 7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Joko Widodo 당선)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정부

라. 경제 지표

GDP 5456억 달러 ('12년)

경제성장률 5.78 % ('13년)

1인당 GDP 3500 달러 ('13년)

실업률 6.25% ('13년)

물가상승률 7.57 % ('13년)

화폐단위 Rupiah (Rp)

환 율 1달러 = Rp 11,649 ('14년 4월)

외환보유고 994억 달러 ('14년 1월)

산업구조 광업(석탄, 석유, 가스), 농업(고무, 팜유), 제조업(섬유, 자동차, 철강)

교역규모 3691억 달러(수출 1825억 달러, 수입 1866억 달러) ('13년)

주요교역품

수출: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 제품, 유기 화학 제품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정부

마. 체결협정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 임업협정(87.6)
- 항공협정(89.9)
- 이중과세 방지협정(89.11)
- 투자보장협정(91.2)
-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 건설협력약정(99.4)
-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 사법공조협정(02.3)
- 자원협력협정(02.4)

- 도로협력약정(03.1)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06.5), 발효 (07.6)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07.11), 발효 (09.5)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09.6)

교역규모

- 수출: 139억 달러
- 수입: 157억 달러)
- 총교역액: 296억 달러(2012년)

교역품

- 수출품: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
- 수입품: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 니켈

투자교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2012년): 3위 직접투자국 19.5억 달러
교민 36,300 명 (2012년 외교통상부)

자료원: 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투자청

2. 정치사회동향

가. 인도네시아 역사

1) 인류 최초의 직립원인 자바 원인(Java Man)발견

두보아(Eugence Dubois)는 기원 100만 년 전에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 (Pithecanth ropus Erectus)로 명명된 자바원인화석 발견되었다.

2) 고대왕국 시대

- 7세기: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 (불교왕조)
- 7세기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의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발흥
-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 형태, 체계적인 통치술보다 무역에 필요한

배와 그 배를 보호하는 전함을 건조하는데 치중

- 이를 바탕으로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위치를 접한 스리위자야 왕국은 해양 무역의 통제권을 행사

○ 13세기: 마자파히트 (이슬람 왕조) *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일한 최초왕조

- 13세기 아라비아 상인과 인도상인에 의해 전래된 이슬람을 수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 힌두교, 애니미즘 등의 종교를 포용하였고, 14세기에는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쑤바와섬에까지 세력을 확장, 이슬람교와 문화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3) 식민지 시대

○ 1596~1942: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 1942~1945: 일본군 점령 시대

4)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945.8: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 선언 및 헌법 채택.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취임

○ 1945~1966: 수카르노 체제(Orde Lama-구질서)

- 1949~1957: 의회민주주의시기

- 1957~1966: 교도민주주의 시기(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 융합)

- 1955: 반둥(Bandung) 비동맹 정상회담개최 비동맹 운동주도

- 1963: 이리안자야 강제합병

- 1965: 9월 30일 공산 쿠데타 발생 (수하르토 장군 진압)

수카르노 체제 당시 경제 분야 상황

•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주요산업의 국유화 조치

• 민족자본 부재 및 경제의 빈사상태

•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장기경기침체

○ 1966. 3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에 실권 이양

○ 1968~1998: 수하르토 체제(Orde Baru-신질서)

- 실용주의 정책

- 군부의 이중기능(정치참여 허용)

- 자바섬 인맥 중심주의

- 화교의 정치활동 제한과 및 문화적 탄압
- 정당정치의 변화(Golkar당 주도)
- 1998년 5월 피플 파워에 의해 하야

수하르토 체제 당시 경제 분야 상황

-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에 따른 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 추진
- 서방세계의 차관원조,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규제 완화
- 1970~1980년대 고유가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 지역, 민족간의 경제 불균형심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심화, 족벌체제 등장
- 1997년 경제위기
- 1998. 5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수하르토 실각 및 하비비 대통령 취임(과도 정부)
- 1999.10월: 와히드 대통령, 메가와티 부통령 취임
- 2001. 7월: 부패혐의로 와히드 대통령 탄핵, 메가와티 부통령이 승계
- 2004.10월: 유도요노 대통령, 칼라 부통령 취임(5년 임기)
- 2009.10월: 유도요노 대통령, 부디오노 부통령 취임(5년 임기)

나. 유도요노 정권(2004~현재)

2009년도는 4월의 총선과 7월의 대선이 치러진 중요한 해로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이 원내 의석의 26%를 차지해 제1당의 입지를 굳힌 가운데 유도요노 현 대통령도 62%가량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집권 1기(2004.10-2009.10) 동안은 의회 다수당인 골까르당과의 제휴로 인해 부통령인 유습 깔라 골까르당 총재와 권력 분점 논쟁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2009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입지를 다진 유도요노 대통령은 집권 2기 동안은 전직 경제조정부 장관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부디오노를 부통령과 함께 적극적인 부패 척결 및 개방, 개혁정치를 펼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 및 테러와의 전쟁 수행, 분리독립 투쟁을 지속해 온 아체지역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타결(2005.8) 하는 등 정국 안정에 매진했다. 그의 경제정책 기조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며 만성적인 재

정적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외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 2기 유도요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관료주의 타파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2014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율을 4% 미만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3천 2백만 명을 위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기 유도요노 정부는 뿌리깊은 부패와 열악한 인프라, 광범위한 빈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1억 인구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있고, 소위 중산층이라는 1억 3천 인구 중 6천만 명이 하루에 2-4 달러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한편 2013년 6월, 유도요노 정부가 국가예산의 약 20%을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 정책 개혁을 강행했다. 300조 루피아가 에너지 보조금에 사용되며 이는 국가 예산이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비정상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된 조치이다. 연료 보조금 축소가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휘발유 66%, 경유 44% 되었고, 이에 반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7월 9일 대선을 실시하였는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가 53.15%의 득표율로 당선하였다. 조코위 당선자는 2014년 10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이다.

다. 정치 제제

1) 행정부

-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 부통령: 부디오노 (Boedi Ono)
- 중앙부처 장관: 총 34명

2) 입법부

국민협의회(MPR)는 국회(DPR)와 지역대표자회의(DPD)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협의회(MPR) 692명(임기5년) 헌법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정·
부통령 탄핵 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 및 집행감독, 행정부 견제 등

지역대표회의(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및 예산, 입법권

정당 별 국회의석 분포(2009년 4월 9일 총선 결과)

정당명 의석수(총 560석) 주요 소속 정치인

민주당 (PD) 148 유도요노 현 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107 깔라 현 부통령

투쟁민주당 (PDI-P) 94 메가와띠 전 대통령

정의복지당(PKS) 57 히다얏(국민협의회 의장)

국민수권당 (PAN) 46 수뜨리스노(기업인)

기타 (4개정당) 108 PPP,PKB,Gerindra,Hanura

3) 사법부

3심제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있다.

4) 지방정부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에 총 33개의 지방자치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 5개의 섬: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라. 사회 동향

1) 인구 분포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2억 3,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활한 국토를 따라 30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고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도 유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 관련 통계

인구 증가율 1.49%

출생률 인구 1000 명당 26.89명

사망률 인구 1000명당 6.9명

영유아 사망률 신생아 1000명당 34.0명

평균 수명(전체) 70.9 세

평균 수명(남자) 68.26 세

평균 수명(여자) 73.38 세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 지역별 특성

영토가 넓고 종족이 다양한 만큼 각 대륙 별 민족 별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지도층이 가장 많은 자바(Java, Sunda)인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이다.

성품이 자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과 도량이 넓은 처신을 하며 보수적이다.

맛이 단 음식을 좋아하고 서둘지 않는다.

수마트라인 특히 북부지역사람들(Batak)은 거칠게 보이나 사귄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며 다소 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 많은 인사가 진출해 있고 과격한 인사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활동적인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인구가 적은 술라웨시와 깔리만탄인은 정계와 군부에 매우 적은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안배,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우 등 정책적인 배려로 등용되고 있다. 흑인이 많은 파푸아 (이리안자야) 티모르 등지 출신이 사회지도층이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수는 매우 적은 편이나 최근 강인한 체력을 인정받아 체육선수로 육성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화교의 위상

인도네시아 내 화교는 대략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화교 인구를 보유.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를 진압, 집권한

후 화교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주로 경제분야에 참여를 확대
화교들은 특유의 상술로 인도네시아 상권을 장악하여, 인도네시아 경제계의 대부분을 화교 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정, 관계 주요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 이들의 후원을 토대로 기업을 운영

3) 종교

인도네시아는 종교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에 종교만을 관장하는 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종교를 기입하게 되어있을 정도로 종교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기타 종교활동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교를 비롯,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구비율로는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1.8%)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 수를 자랑하는 이슬람 국가로 인구가 밀집된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소개된 것은 13세기경으로 인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도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음주를 금기 시 하고 있으며, 하루 다섯차례의 기도와 금요일예배, 단식월(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16세기 초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서양의 선교사들의 파송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슬라웨시 지역과 파푸아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톨릭교의 경우 16세기에 말루쿠(Maluku) 섬에 도착한 포르투갈 선교사 프란시스 사비에르 (Francis Xavier)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주로 파푸아와 플로레스 지방에 넓게 퍼져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인도네시아 관계

1) 외교 관계

- 1949.12월: 아국, 인도네시아 승인
- 1966. 8월: 영사관계 수립
- 1966.12월: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73. 9월: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 교류

- 1981. 6월: 전두환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982.10월: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992. 9월: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 1994.11월: 김영삼 대통령 국민방문 및 제2차 APEC 정상회의 참석(보고르)
- 1999.11.27일: 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2000.2.10~11일: 와히드 대통령 국민방한
- 2000.11.27~29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 2002.3.30~4.1일: 메가와티 대통령 국민방한(남북한 동시방문)
- 2003.10.6~9일: 노무현 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 참석(발리)
- 2004.11.29일: 노무현·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비엔티엔 ASEAN+3 정상회의)
- 2005.1.5일: 이해찬 총리·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자카르타, 지진·해일 피해 관련 ASEAN 긴급 정상회의)
- 2005.11월: 유도요노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
- 2006. 3월: 김원기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방문
- 2006.12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문
- 2007. 7월: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 방한
- 2009. 3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문
- 2009. 6월: 유도요노 대통령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
- 2010. 11월: 유도요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 2010. 12월: 이명박 대통령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차 방인도네시아

- 2011. 11월: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인도네시아
- 2012. 3월: 유도요노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 2013.10.6~8일: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 2013.10.12일: 박근혜·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 (자카르타)

3) 대 남·북한 입장

정책 기조

비동맹·중립 기조 하에 표면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와의 쌍무관계 증진이 인도네시아 국익은 물론 ASEAN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 한국 관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에 비해 약 10년 늦은 1973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이후 양국 정상간 교환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2004) 이후 APEC, ASEANA+3 등을 계기로 우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등 제분야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중에 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간 미래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간 에너지, 자원, 산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이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개발 등 신성장 동력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 및 12월 발리민주주의 포럼 시 양국정상간 경제, 국방, 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이를 위해 양국간 특사 단을 파견키로 하고 먼저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2011년 2월 방한하였으며, 한국 특사단은 3개월 후인 5월에 발리를 방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3월말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한 유도요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 계시

선언. 두 정상은 연내 제1차 협상을 시작하기로 협의하였고, 양국 교역량을 2015년 500억, 2020년 1000억 달러로 늘리자는 목표도 정함.

201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으로, 양국은 2013년을 '한-인니 우정의 해'로 지정하였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상품전, K-Pop Festival, CSR 포럼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2월 26일 부디오노 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축사절단장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으며, 2013년 발리에서 개최된 인 2013 APEC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했다.

대 북한 관계

수교(1964) 이래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 간 교환 방문을 통한 개인적 친분과 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 연대감을 토대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공산당 주도의 쿠데타(1965)를 무력 진압, 집권한 이후 철저한 반공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관계가 소원화 되었었다.

그 후 메가와티 대통령이 부친(수카르노 전대통령)과 북한의 친분을 감안, 북한을 공식방문하고(2002), 퇴임 후에도 방북 (2004)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가 정상화 되었다.

유도요노 정부 들어서는 경제·무역·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희망하고 대북특사(2006), 파견 등 실질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5월 김영남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방문하였고 양국간 언론 및 정보통신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4) 이민 역사

- 1940년대 초: 일본징용 및 종군위안부
- 1960~70년대: 상사주재원 및 기업인
- 1980~90년대: 노동 집약 산업을 비롯한 현지 생산기지 진출
- 2000년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 등 진출 분야 다양화

5) 주요 협정체결

- 1971. 8월: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1981. 7월: 건설협력 양해각서
- 1987. 6월: 임업협정
- 1989. 9월: 항공협정
- 1989.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 2월: 투자보장협정
- 1996.12월: 법무자료교환협정
- 1997.11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
- 1999.4월: 건설협력 약정
- 2000.1월: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
- 2002.3월: 사법공조협정
- 2002.4월: 자원협력 협정
- 2003.1월: 도로협력 약정
- 2005.12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6.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2007.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 2007.11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 2009. 5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6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6) 양국 간 정기 고위급 회의

-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 한-인도네시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부문)
- 한-인도네시아 외교부간 정책기획협의(외교부)
- 한-인도네시아 도로교류 회의(건교부)
-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외교부)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T/F (지식경제부)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특사단 (경제부처 및 민간기업 참여)